

섬유제품 · 숙박 · 음식점업 피해 심각

코로나19 중기 업종별 피해실태조사 결과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 운영자금 부족 등이 가장 커 중기 67.6%, 필요 지원책으로 '소득세 · 법인세율 인하' 꼽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1,234개 중소기업(제조업 587개, 비제조업 64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76.2%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섬유제품업(100.0%)', 비제조업은 '숙박' 음식점업(100.0%)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운영자금 부족 · 자금압박'을 가장 큰 피해사태로 꼽았다. 제조업은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81.2%) △운영자금부족 · 자금압박(37.3%) △계약불량(수출물량포함) 취소(19.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비제조업은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81.4%) △운영자금부족 · 자금압박(52.5%) △상가 임대료 부담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가 가장 많았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51.8%)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방안을 마련해 과감한 대출유도(41.9%)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22.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정부 지원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70.4%)이 가장 높았고 △시중 · 지방은행의 이차보전대출(52.2%)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최저금리특별대출(52.1%) 순으로 응답했다.

제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최저금리특별대출', 시중은행 · 지방은

행의 '이차보전대출' 순으로, 비제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시중은행 · 지방은행의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최저금리특별대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자금 취급은행의 보증과 대출업무 일괄실행,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책을 모르고 있거나 체감을 못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애로사항에 대한 세밀한 지원과 함께 정부의 지원책이 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코로나19 시대'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해 사내 · 외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선도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5월 30일 열린 사내벤처 출범식.

국민 체감 규제혁신 '앞장'

사내벤처 신청 자격 확대 · 부채 설비 점검기간 유연화 등 전기안전공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7건 발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코로나19 시대'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사내 · 외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선도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과 관련해 '전기 안전건물 인준제도 범위 확대' 등 7건의 규제 혁신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각급 기관이 시행 중인 여러 행정규정들을 현상과 현상에 맞게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제도개선 성과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새 규제혁신 방안이다. 정부 각 부처에 걸쳐 총 119개 규제전환 사례가 선정된 가운데, 공사는 경제와 민생혁신 두 분야 모두에서 7건의 과제를 발굴, 추진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혁신사례를 이끌어냈다.

공사의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사내벤처 신청 자격을 확대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 삭제 △고급 불완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 삭제 △신재생발전설비 수검자가 제출한 측정 및 시험결과 인정 범위 확대 △부채 · 부채합설비 점검기간 유연화 등이다.

이밖에 전기 안전건물 인준제도 범위를 넓히고 기존 안전관리대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기설계, 감리 등 유관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공사가 힘을 기울여나갈 또 다른 혁신과제들이다.

조성완 사장은 "공공기관은 국민편익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한 혁신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 8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축헌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축산업 발전 위해

희생된 가축 영혼 위로

농진청, 축헌제 지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8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본원 내 축헌비 앞에서 축헌제를 지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마다 5월 초, 축산업 발전과 연구 사업으로 희생된 가축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축헌제를 지내고 있다. 올해 축헌제는 분향으로 시작해 헌찬, 아프리카페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위험으로부터 축산업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축헌사로 이어졌다.

양창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승고하게 희생된 가축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축산업이 한 단계 발전했다. 해마다 그 영혼을 위로하고자 축헌제를 지낸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차 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프로젝트 추진

전북중기청, 지난해 1차 55개사 선정 이어 45곳 추가 선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 자립화를 달성하고 미래신산업 창출의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2차 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 육성사업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소부장 강소기업 100프로젝트는 이미 55개사를 선정하는데 이어 올해는 45개사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작년에 전북지역에서는 1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강소기업으로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총 매출액 중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며, R&D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 · 심층 · 최종평가 등 총 3단계로 구성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외부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30여 개 사업과 연계 지원을 통해 최대 18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에 신청하면 되며, 최종선정 결과는 7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NH농협손보 전북총국

11일부터 판매 시작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강희상)은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오늘부터 개시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민은 오는 6월 28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 · 축협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벼 보험은 자연재해로 모내기를 못하는 이앙 · 직파 불능 피해를 보장 받으려면 15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벼 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태풍, 우박, 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환인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시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은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해 계획이다.

작년에는 태풍, 폭염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벼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며, 전북에서도 1만6,035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해 45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벼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전라북도에서 15%, 지방자치단체와 농 · 축협에서 재정에 따라 15~30%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시군에 따라 5~20% 정도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강희상 전북지역총국장은 “지난해 태풍, 이상저온은 물론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며 올해도 발생하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해마다 늘어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LH희망상가 잔여 9개호 입점자 모집

LH전북본부, 전주반월2

익산인화 · 정읍첨단 등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이반달 전북지역 임대단지 내 공공임대상가인 LH희망상가 중 익산인화, 전주반월2, 정읍첨단, 완주삼봉지구 내 잔여상가 9호를 공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LH희망상가는 일지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소상공인,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LH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임대조건 및 입점자 선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희망상가 유형)

공급유형	공급대상	공급방법	공급조건	공급방법
공공지원형	I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공공임대	임대보증금액의 50%	자격제한 및 사업계획서 심사
일반형	실수요자	일반경쟁입찰	낙찰가제	일반경쟁입찰

(모집 대상)

단지명	종	호	임대면적 (㎡)			임대료(2인)			공급유형	주최세대
			계	최소	최대	보증금	월임대료 (₩/월)	보증금		
익산인화	1	102	50.9175	44	6.9175	9,144,000	381,000	I	612	
		103	50.9175	44	6.9175	9,144,000	381,000	I		
		104	50.9175	44	6.9175	13,843,000	576,000	II		
전주반월2	1	101	42.9718	35.73	7.2418	낙찰가제	낙찰가제	1/24	842	
		105	43.2965	36	7.2965	7,045,000	293,000	I		
정읍첨단 A1-3	1	102	45.8	36	9.8	3,288,000	137,000	I	600	
		102	40.2875	36.49	3.7975	3,408,000	142,000	I		
완주삼봉 A-1	1	103	40.2875	36.49	3.7975	3,472,000	238,000	II	1,092	
		104	40.2875	36.49	3.7975	3,472,000	238,000	II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일반형(III)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경쟁입찰을 거처하며, 공공지원형(I, II)은 청

년 · 경력단절여성 ·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입점자를 선정한다.

일반형 입찰은 오는 13일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실시되며, 공공지원형은 25~29일 입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접수 후 심사절차를 거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의 입점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의, 대법원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건의

“왕복 20분이면 충분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작은 것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아중동에 거주하는 K씨의 불만이 찬 목소리다.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군 소재의 법인들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무조건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지난 6일 법인인감증명발급 통합무인발급기를 전주시청과 완주구청 · 덕진구청에 설치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이 덕진동에서 민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경원동의 전주등기소가 흡수 통합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면서,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임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동남권과 완주군의 법인들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먼 길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의 통합무인발급기가 법원 외에 일부 시청과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수가 44대에 이르지만 전주권에는 1대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수변도시 매립공사 입찰공고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에서 추진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하 '수변도시 조성사업')중 선행공종인 수변도시매립공사가 7일 입찰공고 됐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국정과제 78번에 반영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으로, 새만금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에는 △어디서든 수변 조망과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변도시(Waterfront) △실시간 정보공유, 소비가 가능한 스마트 도시(Smart City) △다양한 주거와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Eco-Friendly) 3가지 컨셉이 반영된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가 개발된다.

이번에 공고된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공유수면인 선도사업지구를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제방축조 및 준설 · 매립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은 9월까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설계한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이어 9월말 기술제안 및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11월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고에는 기존 새만금사업 보다 한층 더 강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기업 우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김윤상 기자